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 일	19:00 (청 년)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유 아 세 례	06:30 (새 벽)	10:30 (교 중)
		연령회 회장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 일	19:00 (청 년)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1Cu-우리어머니	11월 12일(일), 12:00	강당
2Cu-사도들의 모후	11월 12일(일), 13:30	강당
울뜨레아	11월 19일(일), 11:40	강당

● 구역 미사

일시	담당 구역	장소
11월 14일(화), 20:00	10구역	강당
11월 21일(화), 20:00	16구역	가정
11월 28일(화), 20:00	23구역	강당

● 알림

- 오늘은 평신도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11월 22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매주 목요일 10시 30분 강당에서 시니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 회의

- 사목협의회
 - 일시 : 11월 23일(목), 19시 40분
 - 장소 : 강당

● 교육 / 강좌

- ‘2024년 부활’ 세레반 모집
 - 주일반 : 일요일 오전 9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맞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1인 1구좌 후원 부탁드립니다.)

● 본당 직원 모집

- 분야 : 사무장 1명(계약직, 성별무관)
 - 대상 :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 된 신자로 사무 행정, 회계 업무 경력자 우대
 - 서류 :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증명서,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제출 : 11/12일까지 방문·우편(08375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 이메일(dkt8383@naver.com)접수
- ※ 서류전형 후 면접 해당자 개별 통보.

● 다음 주일(11/19)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8구역	청소	7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1월 1일~ 11월 7일)

교무금	7,171,000원
주일헌금	4,731,620원
권용덕100만원 강미자100만원 구상호10만원 임분화10만원 유○○50만원 강성주10만원 양○○ 5만원 김종란15만원 배상철 5만원 김기준10만원 윤남기 5만원 최경자30만원 홍종열20만원 서만심 6만원 1구역 국수 잔치 나눔 5만원	

● 교종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11/12	구민서	조흥환	신종구	김진수	임종윤	장익근	김명선
11/19	이인옥	심재순	도현만	유숙종	장희석	안상록	정재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1/12	이화봉	옥윤필	김인기	박용환	최창열
11/19	장인홍	김인기	손상민	박형순	옥윤필

화답송 

주님 저 의하—느—님 제—영 혼 당—신—을 목말 라하나이 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42. 생태계의 기능을 더 잘 이해하고, 환경의 중요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적절한 분석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이 가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생물종들을 특별히 보살피면서 보호 계획과 전략을 개발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을 철저히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IV.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43. 인간도 생명권과 행복권을 누리며 고유한 존엄성을 지닌 이 세상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훼손, 현재의 개발 방식, 버리는 문화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4.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는 많은 도시들이 불균형적이고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유독 가스 배출에 따른 오염뿐 아니라 도시의 혼잡, 열악한 교통, 시각 공해, 소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은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체계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와 물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된 지역들마저도 혼잡하고 혼란스러우며 녹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시멘트, 아스팔트, 유리, 금속으로 넘쳐 나는 세상에 살면서 자연과 물리적 접촉이 차단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